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⑬ 정각원 중단(신중단) 1

법당에 스며든 불교 외적 요소

앞선 산책에서 우리는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상단(불단), 중단(신중단), 하단(영가단)의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뜬금없지만, 그룹 'W.H.I.T.E'의 '네모의 꿈'이란 노래를 아는지 묻고 싶다. 둥근 지구에서 둥글게 살라는 충고를 듣고 살지만 네모로만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그건 꿈이라고 말하는 노래다. 나름 세상을 거꾸로 보자는 내용인데 법당 예절과는 반대로 산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다.

정각원의 신중단에는 네모난 모양의 탱화가 봉안돼 있다. 그것은 네 방향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중심으로 4신수, 8괘, 12지신, 12궁 별자리, 여러 불보살, 그리고 한반도를 후광으로 두른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묘사한 불화, '통일찰해도(統一察解圖)'이다. 12지신이 불교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다지만, 청룡·백호·주작 같은 상징들과 함께 건곤감리의 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12궁은 누구를 붙잡고,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요소들을 신중단에 그려 넣었을까? 전통적으로 모셔졌던 39위, 104위의 불교 신중님들은 다 어디로 가신 걸까? 이 같은 의문이 절로 든다. 거꾸로 보기로 한 김에, 신중단도 삐딱하게 바라보기로 하자.

신중단, 신중신앙은 우리 불교 신앙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찰 운영에서 초하루 기도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중기도의 영험함이 사찰 살림살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반대로 신중은 삼보(三寶)의 보호자이기에 신앙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사실 39위든, 104위든 오랜 세월 불교 안에 잘 녹아들었을 뿐이지, 외도의 신격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정각원 신중단의 여러 존격(尊格)들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교 외적인 요소들을 불교가 받아들이는 원리는 무엇일까? 첫째로 완전한 거부의 원리다. 이는 불교의 종취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배격하는 태도다. 필자는 이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나 이천 년이 넘는 불교 역사 속에서 주류의 태도는 아니었던 듯하다. 둘째로 첫째와 반대되는 다원주의적 태도다. 사실상 다원주의적 태도가 대부분 지역불교에서 관찰된다. 그런데 다른 외도들도 전파된 지역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제사를 지내는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49재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판테온(만신전) 안에 다른 종교의 신격을 들이는 세계 종교가 불교 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교와 같이 괴력난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정각원 신중단에 봉안된 통일찰해도.

불교신앙 속 독특한 위치 차지
외부신앙의 존격 수용 고민 필요
사상적 배경 문헌서 찾아 봐야

복잡한 문제다. 힌두교의 시바, 비슈누는 마혜수라천, 대자재천과 같은 모습으로 신중단에 잘만 모시면서 불교의 포용적 성격을 부각하는 데 반해 왜 한국의 산신 신앙을 절에 모시는 것은 기복신앙이라면서 비불교적이라고 비판받을까? 위에 말했듯 필자는 이들을 거부, 배격하는 것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한다. 하지만 똑같은 구조, 즉 외도의 신격을 불교 안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똑같은데, 전자에 비해 후자가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동일 구조는 동일 논리이다. 해석학에서는 동일한 구조라도 상황마다 다른 맥락이 있겠다지만 이는 기만이다. 자신의 실수에 맥락을 보아달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맥락에 따라 선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다.

지금에서도 필자는 인도와 변지(중국, 한국 등)의 차이로 이 문제가 보인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신앙은 진실이고, 중국,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신앙은 거짓이라는 주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에 만약 산신각이 비불교적이라고 철폐해야 한다면 마땅히 신중단도 치워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의 신격을 불교에 안치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조심스레 말해보자면 이 신격이 깨달음, 즉 불교적 구원과 일치할 수 있다면 불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불교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신격이 인도에서 유래했는지 그 외에서 유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단을 향한 우리의 예경이 깨달음의 진주가 될 수 있다고 항변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단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주는 '화엄경약찬게'와 같은 문헌에서 사색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화엄경약찬게'에는 그저 〈화엄경〉에 나타나는 여러 존격의 이름과 각 품의 명칭만 나열될 뿐이다. 인도의 원어를 거친 한자음에 맞춰 음역한 여러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논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천태지의(天台智顗)는 산스크리트 화자(話者)가 아니면서도 불교 경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상판석이라는 경전들과 교리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제일인자로 그의 교상판석은 고래로 가장 타당한 것이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천태지의의 경전 이해는 경전 간의 관계와 같은 거시적 부분보다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미시적 부분이 더 압권인데, 간단히 말하면 한자 한 글자마다 모두 깨달음으로 개현(開顯)하는 것이다. 즉,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고 한다면 여(如)한 글자에 깨달음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독창적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것이 〈묘법연화경문구〉, 줄여서 〈법화문구〉이다. 이 책은 총 10권의 대작으로 그중 1/4이 제1 서품에 대한 한 글자, 한 글자의 해석이다. 〈법화경〉이 총 28품이니, 그중 1품의 한자만 열심히 연습해도 깨달음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법화경〉 서품에는 '화엄경약찬게'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이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천태지의는 범천(梵天)의 '범(梵)' 한 글자에 이욕(離欲), 즉 욕심을 벗어나는 교리와 관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외도의 브라흐만이 이욕의 수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이해이다. 굴절어인 산스크리트에서 '범'이란 글자는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 고립어인 한자에서만 '범'자는 그 글자 자체로 다른 의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네모 안의 한자인 '범'이 둥글게, 원만히 욕심을 여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또 말이 너무 길어져 신중단을 불교로 만드는 데 지면이 부족해졌다. 하지만 아직 더 신중단을 바라보며 '네모의 꿈'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도형학의 미학은 언급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박사〉

평안으로 복업 짓게 하고 중생의 안온한 삶 이끌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⑳ 제3 영복업륜(營福業輪)의 주요 내용

'제3 영복업륜(營福業輪)'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의 복을 짓는 업륜이란 어떠한 것인가? 근기가 우둔해 선근을 심지 못하고, 지혜가 용렬해 게으르고 정신이 없으며, 온갖 필수품에 집착해 좋은 벗을 멀리 떠난 유정들을 평안하게 해 복업을 짓게 하는 것이다. 또 불·법·승의 일과 친교사 및 궤범사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래의 복을 짓는 업륜이라 하는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2불륜을 성취하고, 위 없는 삼세업지(三世業智: 여래십지의 하나로 삼세(三世) 법에 통달한 영원한 지혜)로써 일체유정이 그 업으로 받는 인과를 여실히 안다. 그 응함에 따라 세 가지 업륜을 세워 교화해야 할 일체중생을 성숙시켜 안온하게 살게 한다. 놀람과 두려움도 없게 하였고, 천마외도들의 삿된 주장을 꺾었으며, 큰 법륜을 굴리고 범행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인과를 여실하게 아느니라."

제3불륜에서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제자로서 복과 지혜·보시와 선정 등을 떠나 마음이 어지러워도 내게 귀의하면, 나는 그 근기와 좋고 나쁜 습성과 뛰어난 이해력 등을 잘 알아 그 응함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율장의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만일 중생으로서 성품이 비틀려 어떤 계율도 받들 수 없으면, 여러 가지로 다스린다. 즉, 억념(憶念) 법을 제정하여 벌을 주고 … 몹시 꾸짖거나 더불어 말하지 않고 이익을 함께 하지 않으며, 혹은 풀로 덮어서 감추듯 하고 물리쳐 없애느니라. … 그리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 다스리고, 삿된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 차이를 관찰하며 악도를 행하는 자에게 치벌(治罰)의 법을 제정해 주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3의 불륜을 성취하고 모든 유정과 개인의 근기, 그의 원(願)과 나쁜 습성, 뛰어난 이해력과 모든 업의 과보를 안다. 그 응함에 따라 이롭고 안락하게 해 편안히 살면서 놀람과 두려움도 없게 하였다. 또 '나는 대선(大仙)의 높은 자리에서 불륜을 굴려, 모든 천마와 외도의 삿된 주장을 꺾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대중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자후 하느니라."

제4와 제5불륜에서도 사중(四衆)을 위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제4불륜에서는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교묘한 방편과 뛰어난 지혜를 성취해 유정들이 삿된 귀의, 소견, 뜻과 법에 즐겨 집착하고 삿된 업을 행한 인연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대중을 불러 과거 부처님들에 의해 이어온 삼보의 종성(種姓)과 인과와 육바라밀과 마음을 통일하기 위해 의지하는 인(因)과 삼율의(三律儀: 별해탈, 정려생, 도생율의) 등 모든 인과법으로 대중을 깨우치고 진리를 시현해 대중들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세우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십선(十善)에 편안히 있게 하고, 함께 법을 따르고 행한다. 또 인연 없는 중생을 불도로 이끌어 인과에 상응한 수행을 하게 한다. 모든 유정을 위해 일체의 선행(善行)을 닦아 사념주(四念住)와 삼매, 해탈지견 등에서 즐거워하게 한다. 또 삼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정근(四正勤), 사신족(四神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 등 도품(37조도품) 가운데에서 함께 기뻐하느니라. 나는 이렇게 제4불륜을 성취하고 … 사자후 하느니라."

제5불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는 모든 지혜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악마와 95종의 삿된 외도와 무량한 악마외도 등 미혹된 유정이 자기 재색에 빠져 싫증을 내지 않고 남의 재색을 사랑해 탐내고, 내 제자들을 깊이 미워하고 질투하여, 나를 해치기 위해 거짓으로 음식을 차려 독약을 섞음을 …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나 허깨비라 하는, 온갖 악으로써 비방하고 불법승에 대해서도 욕하고 헐뜯음을, 나와 성문 제자들에 대해서도 질투 비방함을 안다. 여래는 이를 알기에 육근을 잘 단속하고, 네 가지 무량한 마음에 의지하며, 네 가지 변재를 갖추어 여러 성문을 위해 법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여 청정한 삼해탈문에 편히 머무르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제5불륜을 성취해 세간과 세간을 벗어난 알음알이와 온갖 성품에 대한 지혜로 모든 유정과 그 개인의 한량없는 갖가지 성품을 안다. 그 응함을 따라 이롭고 안온하게 살며 어떤 놀라움이나 두려움도 없게 하였고, '나는 대선의 높은 자리에서 법륜을 굴려 모든 천마와 외도들의 삿된 주장을 꺾는다'고 자칭하면서 대중 가운데서 바르게 사자후를 하느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온갖 모함과 비방을 겪어나가면서도,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자비의 마음을 주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